

다문화 청소년과 비다문화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 관련 요인 비교

강현주 · 박현주 · 현혜진
강원대학교 간호대학

Comparison of the Factors related to the Experience of Violence Victimization between Multicultural and Korean-Origin Adolescents

Hyun-Ju Kang · Hyunju Park · Hyejin Hyun
School of Nurs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factors related to violence victimization between multicultural and Korean-origin adolescents. **Methods:** This study used the data of the 2017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A total of 54,748 multicultural and Korean-origin adolescent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Weighted percentage and means were used to describe the sample. Simple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s were conducted using SAS 9.2. **Results:**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experienced more violence victimization than Korean-origin adolescents. In both groups, middle school students, habitual drug users, and those not living with their family showed a greater risk of becoming a victim of violence. In Korean-origin adolescents, while girls and those with mid-level family economic status showed a lower risk, those who had experienced sadness or despair, suicidal ideation, smoking and problematic drinking showed a higher risk of becoming a violence victim.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those with a lower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a lower stress level had a higher risk of violence victimization. **Conclusion:**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factors significantly related to violence victimization differ between multicultural and Korean-origin adolescents. Therefore, different approaches are required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violence victimization in different populations.

Key Words: Multicultural adolescent, Violence victimization,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 급격한 발달을 하며, 정신·사회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정서 변화 등 불안정한 환

경에 노출되면서 음주, 흡연, 자살, 폭력 등 여러 가지 부적응적인 행동 및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청소년 폭력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태이다. 청소년들이 학대나 폭력으로 아동보호기관에 신고된 피해 사례는 2015년에 전년 대비 16.6%가 증가하였고[1], 2017년 청소년 통계에 의하면 2015년 13~15세의 신체학대, 정

Corresponding author: Hyunju Park

School of Nurs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1 Gangwondaehak-gil, Chuncheon 24341, Korea.
Tel: +82-33-250-8879, Fax: +82-33-242-8840, E-mail: hpark@kangwon.ac.kr

Received: Oct 4, 2018 / Revised: Nov 13, 2018 / Accepted: Nov 13, 2018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서학대를 포함한 아동학대 사례는 22.2%로 보고되었다[2]. 또한 학교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2012년도 1차 조사에서는 전체 학생들 중 12.3%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2017년 1차 조사에서는 중학생은 0.5%, 고등학생은 0.3%에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 따라서 학교폭력실태조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가정폭력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청소년들의 폭력 피해경험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관심을 기울여야만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초, 중, 고등학교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다문화 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문화 가정의 대부분은 결혼이민자와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이루어지며, 이들의 혼인으로 인한 다문화 가족 자녀 출생이 우리나라 전체 출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8년 2.9%에서 2014년 4.9%로 증가하였다[4].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다문화 가정 출생아들이 성장함에 따라 학령기 및 청소년기 자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4]. 즉, 2007년 다문화가족 자녀수는 44,258명에서 2016년 201,333명으로 증가하였고[5], 이 중 2016년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수는 약 99,000명으로 2015년에 비해 약 20%가 증가한 수치이다[2]. 따라서 미래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될 다문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그런데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비다문화 청소년에 비해 폭력 경험의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 즉,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자녀의 5%에서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보고되었고[4], 2010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결과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6.8%, 비다문화 청소년의 2.3%가 학교폭력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기 폭력피해는 신체적 폭행 뿐 아니라 협박, 따돌림, 언어폭력 등을 모두 포함하며[3], 언어소통의 어려움, 외모 차이,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에 의해 다문화 청소년이 비다문화 청소년에 비해 폭력피해에 더 취약할 수 있다. 또한 비다문화 청소년과 비교하였을 때 '다문화'라는 특성으로 청소년기를 건강하게 보내고 사회에 적응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즉, 다문화 청소년은 사회적인 소수자이므로 겪는 어려움, 부모의 문화적 배경이 다르므로써 겪게 되는 이중문화 속의 혼란, 부모의 의사소통 장애, 친구를 사귀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등을 경험하기 때문에 사회적응 및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6-8]. 특히 이러한 특성을 가진 다문화 청소년은 비다문화 청소년에 비해 의사소통의 어려움, 정보 부족, 낮은 자아존중감 등으로 인하여 폭력피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장기적인 폭력에 노출되는 경

향이 있어[9] 더욱 관심이 필요하다.

청소년 폭력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스트레스, 우울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10,11], 약물, 흡연, 건강상태, 행복감, 슬픔이나 절망감, 자살생각 등이 청소년 폭력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2]. 즉, 2013년 층화다단계집락표집 방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전국 초중학교 학생 6,359명을 대상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연구'를 분석한 결과, 폭력피해 경험은 우울,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0]. 또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을 층화다단계집락표집을 통해 총 10,453명을 조사한 2015년 아동청소년인권조사실태 조사에서도 우울이 폭력피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 2013년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자료 중 다문화 청소년 804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약물, 흡연, 건강상태, 행복감, 슬픔이나 절망감, 자살생각이 폭력 피해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폭력피해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들을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며, 또한 기본적인 일반적 특성 역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청소년 폭력피해 경험을 연구함에 있어서 비다문화 청소년과 다문화 청소년 폭력피해 경험 관련 요인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나 두 집단의 차이점을 함께 비교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즉,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하거나[12,13], 다문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고[12], 각각의 연구에서 서로 다른 관련 요인을 포함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비다문화 청소년과 다문화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 관련 요인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7년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하여[13] 비다문화 청소년과 다문화 청소년들의 폭력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일반적 특성 및 건강 관련 특성(약물, 흡연, 건강상태 등)과 폭력피해 경험의 관련성을 확인함으로써 폭력피해 고위험군이 어떤 특성을 지니는가를 비다문화 청소년과 다문화 청소년 집단에서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는 비다문화 청소년과 다문화 청소년들의 폭력피해를 예방함에 있어 두 집단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증대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다문화 청소년들과 비다문화 청

소년들의 폭력피해 경험 관련요인을 비교하고자 함이다.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다문화 청소년들과 비다문화 청소년들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 다문화 청소년들과 비다문화 청소년들 각각에서 폭력피해 경험 관련요인들을 파악하여 비교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우리나라 다문화 청소년들과 비다문화 청소년들의 폭력피해 경험 관련요인을 파악 및 비교하기 위해 실시한 단면연구로 2017년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시자료를 이차 분석하였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7년도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하였다. 원시자료는 2017년 4월을 기준으로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였으며, 모집단을 지역군과 학교급을 바탕으로 총 117개의 층으로 층화한 후, 17개 시·도별로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였다. 총 중학교 400개교와 고등학교 400개교를 표본으로 추출하였고, 각 학교에서 표본학교급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각 학년별로 1개 학급씩 추출된 학생들을 조사하였다[13].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의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시자료 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거친 후 자료를 제공받았다. 총 799개교, 62,276명이 원시자료에 포함되었으나,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 중 하루 평균 수면시간을 1시간 미만으로 응답하여 신뢰도에 의심이 가는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하여 총 54,74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는 다문화 청소년 여부 파악에 필요한 응답자료, 일반적 특성, 건강 관련 변수, 폭력피해 경험이다. 모든 자료는 자가 보고로 조사되었다.

다문화 청소년(multicultural adolescent) 여부 파악을 위해 아버지나 어머니가 한국에서 태어났는지의 질문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 중 한 사람이라도 우

리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은 경우를 다문화 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 이들의 국적은 중국, 북한, 베트남, 필리핀, 일본, 대만, 몽골,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을 포함한다. 비다문화 청소년(Korean-origin adolescent)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한국에서 출생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일반적 특성에는 성별, 학교급, 연령, 도시규모, 거주형태, 가정경제수준, 학업성적이 포함되었다. 학교급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구분하였고, 도시규모는 대도시(특별시 및 광역시), 중소도시(대도시를 제외한 시), 군 지역(대도시 및 중소도시를 제외한 군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거주형태는 가족과 함께 생활, 친척집에서 생활, 하숙 및 자취, 보육시설로 분류하였고, 가정경제수준 및 학업 성적은 ‘상’(상과 중상), ‘중’(중), ‘하’(중하와 하)로 구분하였다.

건강 관련 변수에는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행복, 스트레스 인지, 슬픔 및 절망감 경험, 자살생각, 수면시간, 습관적 약물 경험, 평생 흡연 경험, 문제음주 경험을 포함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매우 건강과 건강), ‘보통’(보통), ‘건강하지 못함’(건강하지 못한 편과 매우 건강하지 못한편)으로 분류하였다. 주관적 행복 역시 ‘행복’(매우 행복과 행복), ‘보통’(보통), ‘불행’(불행과 매우 불행)으로 분류하였다. 스트레스 인지는 ‘많이 느낌’(대단히 많음과 많음), ‘조금’(조금), ‘느끼지 않음’(별로 느끼지 않음과 전혀 느끼지 않음)으로 구분하였다. 슬픔 및 절망감 경험은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지의 여부로 조사하였고, 자살생각은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로 조사하였다. 수면시간은 최근 7일 동안 주중과 주말에 잠자리에 든 시간과 일어난 시간을 이용하여 하루 평균 수면시간을 계산하였다. 습관적 약물경험은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또는 일부러 약물을 먹거나 부탄가스, 본드 등을 마신 적이 있는지의 여부로 조사하였다. 평생 흡연 경험은 지금까지 담배를 한 두 모금이라도 피워본 적이 있는지의 여부로 조사하였다. 문제음주 경험의 경우, 스트레스를 풀기위해 술을 마시거나,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술을 줄이라는 충고를 들은 경험이 있거나, 술을 마시고 기억이 끊긴 경험 등의 문제 음주 경험을 6문항으로 질문하여 각각의 질문에 ‘있다’(1점)와 ‘없다’(0점)로 응답하여 총 합을 구하였다. 문제음주의 Cronbach's α 값은 0.78로 조사되었다.

폭력피해 경험은 최근 12개월 동안 친구, 선배, 성인에게 신체적 폭행, 협박, 따돌림 등의 폭력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로 파악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첫 번째 구체적 목표인 다문화 청소년과 비다문화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 관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증화표출법에 따른 가중치가 적용된 백분율, 가중치가 적용된 평균과 표준오차를 구하였다. 두 번째 구체적 목표인 다문화 청소년과 비다문화 청소년 각각에서 폭력피해 경험 관련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단변량과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proc surveylogistic을 활용하여 가중치를 적용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변량 분석은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온 변수를 포함하여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에서는 복합표본설계를 고려하여 증화변수, 집락변수, 가중치 변수를 보정하였으며, SAS 9.2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 관련 특성, 폭력피해 경험

연구대상자 중 다문화 청소년은 784명, 비다문화 청소년은 53,964명으로 조사되었다(Table 1). 일반적 특성 중 성별을 살펴보면, 다문화 청소년은 남학생 45%, 여학생 55%, 비다문화 청소년은 각각 51.2%, 48.8%였다. 학교급 별 구성 비율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다문화 청소년에서 각각 52.4%, 47.6%, 비다문화 청소년은 각각 44.0%, 56.0%로 조사되었다. 평균 연령은 다문화 청소년은 14.92세(SE: 0.07), 비다문화 청소년은 15.18세(SE: 0.02)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를 살펴보면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의 구성 비율은 다문화 청소년에서 각각 40.6%, 46.7%, 12.7%였고, 비다문화 청소년은 43.5%, 50.5%, 6.0%로 나타났다. 거주형태는 가족과 함께 생활, 친척집에서 생활, 하숙 및 자취, 보육시설 각각이 다문화 청소년에서는 95.8%, 1.5%, 3.5%, 2.2%였고, 비다문화 청소년에서는 95.6%, 0.7%, 3.4%, 0.3%로 나타났다. 가정경제 수준은 상, 중, 하의 구성 비율이 다문화 청소년에서는 24.4%, 48.2%, 27.4%, 비다문화 청소년에서는 40.4%, 45.9%, 13.7%로 조사되었다. 학업성적은 상, 중, 하의 구성 비율이 다문화 청소년에서는 28.5%, 28.3%, 43.2%, 비다문화 청소년에서는 39.6%, 29.0%, 31.4%로 나타났다.

건강 관련 특성 중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 보통, 건강하지 못함의 비율이 다문화 청소년에서는 66.4%, 24.5%, 9.1%, 비다문화 청소년에서는 71.9%, 21.7%, 6.4%로 조사되었다. 주

관적 행복감은 행복, 보통, 불행의 구성 비율이 다문화 청소년에서는 67.8%, 22.7%, 9.5%, 비다문화 청소년에서는 67.4%, 25.0%, 7.6%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인지는 많이 느낌, 조금 느낌, 느끼지 않음의 구성 비율이 다문화 청소년에서는 37.2%, 40.6%, 22.2%, 비다문화 청소년에서는 37.1%, 42.9%, 20.0%로 조사되었다. 슬픔 및 절망감 경험이 있는 경우는 다문화 청소년에서 26.7%, 비다문화 청소년에서는 24.6%였으며, 자살생각은 다문화 청소년에서는 15.8%, 비다문화 청소년에서는 11.7%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다문화 청소년은 6.59시간(SE: 0.06), 비다문화 청소년은 6.26시간(SE: 0.02)으로 조사되었다. 습관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비율은 다문화 청소년은 3.8%, 비다문화 청소년은 0.8%로 나타났으며, 흡연 경험이 있는 비율은 다문화 청소년 13.7%, 비다문화 청소년 13.4%로 조사되었다. 문제 음주 점수는 다문화 청소년 0.24 (SE: 0.03), 비다문화 청소년 0.22 (SE: 0.01)점이었다.

폭력피해 경험률은 다문화 청소년 4.2%, 비다문화 청소년 2.0%로 조사되었다. 다문화 청소년과 비다문화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의 차이를 Rao-Scott χ^2 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χ^2 의 값이 14.60, p 값이 $<.001$ 로 나타나, 이 두 그룹의 폭력 피해 경험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일반적 특성 및 건강 관련 특성과 폭력피해 경험과의 관련성(단변량 분석)

다문화 청소년에서 폭력피해 경험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변수는 성별, 거주형태, 가정경제 수준, 슬픔 및 절망감 경험, 자살생각, 수면시간, 습관적 약물사용 여부, 흡연 경험, 문제음주로 나타났다(Table 2). 즉,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폭력피해 경험이 유의하게 낮았고(OR: 0.46, 95% CI: 0.22~0.95), 가족과 생활하는 경우보다 친척과 생활하는 경우(OR: 11.36, 95% CI: 2.42~53.41), 하숙 및 자취하는 경우(OR: 4.68, 95% CI: 1.41~15.46),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경우(OR: 17.84, 95% CI: 5.72~55.60) 폭력피해 경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가족의 경제수준이 '상'인 경우에 비해 '중'인 경우 폭력피해 경험이 유의하게 낮았다(OR: 0.27, 95% CI: 0.09~0.85). 슬픔 및 절망감을 경험하지 않은 군에 비해 경험한 군에서 폭력피해 경험이 유의하게 높았고(OR: 2.89, 95% CI: 1.44~5.79), 자살생각을 하지 않은 군에 비해 한 적이 있다고 한 군에서 폭력피해 경험이 유의하게 높았다(OR: 3.93, 95% CI: 1.84~8.37). 수면시간이 증가할수록 폭력피해 경험은 유의하게 낮아졌으며(OR: 0.62, 95% CI: 0.45~0.85), 습관적 약물 사용을 하지 않는 군에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N=54,748)

Variables	Categories	Multicultural youths (n=784)		Korean-origin youths (n=53,964)	
		n	Weighted % or M±SE	n	Weighted % or M±SE
Gender	Boys	345	45.0	26,953	51.2
	Girls	439	55.0	27,011	48.8
School level	Middle school	451	52.4	26,044	44.0
	High school	333	47.6	27,920	56.0
Age (year)			14.92±0.07		15.18±0.02
Magnitude of city	Big city	301	40.6	24,189	43.5
	Small or medium city	349	46.7	25,722	50.5
	Small town	134	12.7	4,053	6.0
Type of living	Living with family	723	95.8	51,383	95.6
	Living with relatives	12	1.5	364	0.7
	Living in a boarding house	32	3.5	2,023	3.4
	Living in an orphanage	17	2.2	194	0.3
Economic status	Upper	186	24.4	21,522	40.4
	Middle	387	48.2	24,920	45.9
	Lower	211	27.4	7,522	13.7
School achievement	Upper	224	28.5	21,490	39.6
	Middle	226	28.3	15,550	29.0
	Lower	334	43.2	16,924	31.4
Self-rated health	Good	536	66.4	38,994	71.9
	Moderate	183	24.5	11,636	21.7
	Bad	65	9.1	3,384	6.4
Self-rated happiness	Happy	533	67.8	36,626	67.4
	Moderate	183	22.7	13,243	25.0
	Unhappy	68	9.5	4,095	7.6
Stress	Stressful	292	37.2	20,128	37.1
	Moderate	318	40.6	22,907	42.9
	Not stressful	174	22.2	10,929	20.0
Sadness or despair	Yes	213	26.7	13,277	24.6
	No	571	73.3	40,687	75.4
Suicidal ideation	Yes	117	15.8	6,333	11.7
	No	667	84.2	47,631	88.3
Sleep (hours/day)			6.59±0.06		6.26±0.02
Drug addiction	Yes	26	3.8	396	0.8
	No	758	96.2	53,568	99.2
Smoking	Yes	95	13.7	6,909	13.4
	No	689	86.3	47,055	86.6
Problematic drinking			0.24±0.03		0.22±0.01
Victim of violence	Yes	29	4.2	1,115	2.0
	No	755	95.8	52,849	98.0

비해 사용하는 군에서 폭력피해 경험은 유의하게 높았다(OR: 31.03, 95% CI: 12.34~78.00). 흡연경험이 없는 군에 비해 있는 군에서 폭력피해 경험이 높아졌으며(OR: 11.28, 95% CI: 5.23~24.30), 문제음주가 심각할수록 폭력피해 경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OR: 1.82, 95% CI: 1.50~2.21).

비다문화 청소년에서는 성별, 학교급, 거주형태, 가정경제

수준, 성적,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행복, 스트레스 인지, 슬픔 및 절망감 경험, 자살생각, 습관적 약물사용 여부, 흡연 경험, 문제음주가 폭력피해 경험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즉,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폭력피해 경험이 유의하게 낮았고(OR: 0.48, 95% CI: 0.42~0.55),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에서 폭력피해 경험이 유의하게 낮았다(OR: 0.67, 95% CI: 0.61~0.81). 가족과

Table 2. Odds Ratio for Being a Victim of Violence (Bivariate Relationships)

Variables	Categories	Multicultural youths (n=784)			Korean-origin youths (n=53,964)		
		OR	95 % CI	p	OR	95 % CI	p
Gender	Boys	1			1		
	Girls	0.46	0.22~0.95	.035	0.48	0.42~0.55	< .001
School level	Middle school	1			1		
	High school	0.94	0.45~1.94	.857	0.67	0.61~0.81	< .001
Magnitude of city	Big city	1			1		
	Small or Medium city	0.75	0.36~1.58	.454	0.91	0.79~1.05	.183
	Small town	0.22	0.03~1.57	.130	0.86	0.59~1.26	.451
Type of living	Living with family	1			1		
	Living with relatives	11.36	2.42~53.41	.002	14.33	10.89~18.86	< .001
	Living in a boarding house	4.68	1.41~15.46	.012	1.62	1.19~2.20	.002
	Living in an orphanage	17.84	5.72~55.60	< .001	11.84	7.60~18.45	< .001
Economic status	Upper	1			1		
	Middle	0.27	0.09~0.85	.026	0.67	0.58~0.77	< .001
	Lower	1.38	0.61~3.11	.439	1.17	0.99~1.38	.052
School achievement	Upper	1			1		
	Middle	0.39	0.13~1.16	.091	0.82	0.71~0.95	.006
	Lower	0.87	0.38~1.94	.726	1.13	0.98~1.31	.085
Self-rated health	Good	1			1		
	Moderate	1.14	0.50~2.65	.760	1.19	1.04~1.36	.014
	Bad	2.50	0.94~6.62	.066	1.68	1.36~2.08	< .001
Self-rated happiness	Happy	1			1		
	Moderate	1.44	0.47~2.78	.767	1.45	1.27~1.66	< .001
	Unhappy	1.80	0.66~4.94	.254	2.72	2.29~3.23	< .001
Stress	Stressful	1			1		
	Moderate	0.83	0.34~2.03	.679	0.55	0.48~0.63	< .001
	Not stressful	1.87	0.81~4.35	.145	0.61	0.51~0.72	< .001
Sadness or despair	No	1			1		
	Yes	2.89	1.44~5.79	.003	3.05	2.70~3.44	< .001
Suicidal ideation	No	1			1		
	Yes	3.93	1.84~8.37	< .001	3.49	3.08~3.96	< .001
Sleep (hours/day)		0.62	0.45~0.85	.003	0.98	0.94~1.03	.447
Drug addiction	No	1			1		
	Yes	31.03	12.34~78.00	< .001	19.81	15.59~25.19	< .001
Smoking	No	1			1		
	Yes	11.28	5.23~24.30	< .001	2.68	2.33~3.09	< .001
Problematic drinking		1.82	1.50~2.21	< .001	1.47	1.40~1.55	< .001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생활하는 경우보다 친척과 생활하는 경우(OR: 14.33, 95% CI: 10.89~18.86), 하숙 및 자취하는 경우(OR: 1.62, 95% CI: 1.19~2.20),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경우(OR: 11.84, 95% CI: 7.60~18.45) 폭력피해 경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가족의 경제수준이 '상'인 경우에 비해 '중'인 경우 폭력피해 경험이 유의하게 낮았고(OR: 0.67, 95% CI: 0.58~0.77), 성적도 '상'인 경우에 비해 '중'에서 폭력피해 경험이 유의하게 낮았다(OR: 0.82, 95% CI: 0.71~0.95).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는 군에 비

해 보통(OR: 1.19, 95% CI: 1.04~1.36)이거나 나쁜 군(OR: 1.68, 95% CI: 1.36~2.08)에서 폭력피해 경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주관적 행복 역시 행복한 군에 비해 보통(OR: 1.45, 95% CI: 1.27~1.66)이거나 불행한 군(OR: 2.72, 95% CI: 2.29~3.23)에서 폭력피해 경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스트레스는 많이 느끼는 군에 비해 조금 느끼거나(OR: 0.55, 95% CI: 0.48~0.63) 느끼지 않는 군(OR: 0.61, 95% CI: 0.51~0.72)에서 폭력피해 경험이 유의하게 낮았다. 슬픔 및 절망감을 경험하지 않은 군

에 비해 경험한 군에서 폭력피해 경험이 유의하게 높았고(OR: 3.05, 95% CI: 2.70~3.44), 자살생각을 하지 않은 군에 비해 한 적이 있다고 한 군에서 폭력피해 경험이 유의하게 높았다(OR: 3.49, 95% CI: 3.08~3.96). 습관적 약물 사용을 하지 않는 군에 비해 사용하는 군에서 폭력피해 경험은 유의하게 높았고(OR: 19.81, 95% CI: 15.59~25.19), 흡연 경험이 없는 군에 비해 있는 군에서(OR: 2.68, 95% CI: 2.33~3.09) 폭력피해 경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문제 음주가 심각할수록 폭력피해 경험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OR: 1.47, 95% CI: 1.40~1.55).

3. 일반적 특성 및 건강 관련 특성과 폭력피해 경험과의 관련성(다변량 분석)

단변량 분석에서 폭력피해 경험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모든 변수를 포함하여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도시 규모는 단변량 분석에서 다문화 청소년 및 비다문화 청소년 모두에서 유의성이 없었으므로 이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에서는 학교급, 거주형태,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인지, 습관적 약물 사용 여부가 폭력피해 경험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으며, 비다문화 청소년에서는 성별, 학교급, 거주형태, 가정경제수준, 슬픔 및 절망감 경험, 자살생각, 습관적 약물사용 여부, 흡연 경험, 문제음주가 폭력피해 경험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즉, 다문화 청소년에서는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에서 폭력피해 경험이 낮았으며(OR: 0.22, 95% CI: 0.07~0.73), 가족과 생활하는 경우보다 하숙 및 자취하는 경우(OR: 4.11, 95% CI: 1.60~10.54)와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경우(OR: 28.47, 95% CI: 5.85~139.93) 폭력피해 경험이 높았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는 군에 비해 보통(OR: 4.52, 95% CI: 1.89~10.81)이거나 나쁜 군(OR: 4.59, 95% CI: 1.36~15.42)에서 폭력피해 경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스트레스는 많이 느끼는 군에 비해 조금 느끼거나(OR: 3.39, 95% CI: 1.11~10.41) 느끼지 않는 군(OR: 5.69, 95% CI: 1.69~19.09)에서 폭력피해 경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습관적 약물사용을 하지 않는 군에 비해 하는 군에서(OR: 8.06, 95% CI: 2.35~27.70) 폭력피해 경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비다문화 청소년에서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폭력피해 경험이 유의하게 낮았고(OR: 0.43, 95% CI: 0.38~0.50),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에서 폭력피해 경험이 유의하게 낮았다(OR: 0.53, 95% CI: 0.44~0.63). 가족과 생활하는 경우보다 친

척과 생활하는 경우(OR: 10.74, 95% CI: 7.95~14.50), 하숙 및 자취하는 경우(OR: 1.74, 95% CI: 1.29~2.35),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경우(OR: 5.59, 95% CI: 3.22~9.68) 폭력피해 경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가족의 경제수준이 '상'인 경우에 비해 '중'인 경우 폭력피해 경험이 유의하게 낮았고(OR: 0.74, 95% CI: 0.65~0.85), 슬픔 및 절망감을 경험하지 않은 군에 비해 경험한 군에서 폭력피해 경험이 유의하게 높았다(OR: 2.17, 95% CI: 1.85~2.53). 자살생각을 하지 않은 군에 비해 한 적이 있다고 한 군에서 폭력피해 경험이 유의하게 높았다(OR: 1.90, 95% CI: 1.60~2.25). 습관적 약물 사용을 하지 않는 군에 비해 사용하는 군에서 폭력피해 경험은 유의하게 높았고(OR: 8.10, 95% CI: 6.09~10.76), 흡연 경험이 없는 군에 비해 있는 군에서(OR: 1.40, 95% CI: 1.18~1.67) 폭력피해 경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문제 음주가 심각할수록 폭력피해 경험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OR: 1.18, 95% CI: 1.10~1.27).

논 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다문화 청소년들과 비다문화 청소년들의 폭력피해 경험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 비교하여 두 집단의 차이점을 확인함으로써 다문화와 비다문화 청소년의 폭력피해를 예방하고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한 중재와 관리에 있어서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다문화 청소년들의 폭력피해 경험은 4.2%로 비다문화 청소년들의 폭력피해 경험 2.0%보다 약 2배 이상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 청소년이 폭력피해에 있어서 더 취약한 집단임을 시사하였다. 물론 본 연구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서 제시된 문항을 분석하였으므로 폭력피해가 가족환경에서 이루어졌는지 학교환경에서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응답자가 모두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되고, 가족보다는 또래집단에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기의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반 청소년보다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 경험이 높았던 Lee와 Cho [14]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폭력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면밀한 접근과 대응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다문화 청소년들과 비다문화 청소년들의 폭력피해 경험 관련 요인을 비교하기 위해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변수를 포함하여 각각의 변수를 보정한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 청소년과 비다문화 청소년 모두에서 학

Table 3. Adjusted Odds Ratio for Being a Victim of Violence (Multivariate Relationships)

Variables	Categories	Multicultural youths (n=784)			Korean-origin youths (n=53,964)		
		AOR	95 % CI	p	AOR	95 % CI	p
Gender	Boys	1			1		
	Girls	0.45	0.12~1.68	.237	0.43	0.38~0.50	< .001
School level	Middle school	1			1		
	High school	0.22	0.07~0.73	.013	0.53	0.44~0.63	< .001
Type of living	Living with family	1			1		
	Living with relatives	3.28	0.68~15.97	.141	10.74	7.95~14.50	< .001
	Living in a boarding house	4.11	1.60~10.54	.003	1.74	1.29~2.35	< .001
	Living in an orphanage	28.71	5.85~139.93	< .001	5.59	3.22~9.68	< .001
Economic status	Upper	1			1		
	Middle	0.61	0.11~3.35	.570	0.74	0.65~0.85	< .001
	Lower	0.94	0.30~3.00	.917	0.88	0.74~1.05	.149
School achievement	Upper	1			1		
	Middle	0.86	0.27~2.71	.800	0.94	0.80~1.09	.382
	Lower	0.66	0.19~2.29	.515	0.99	0.85~1.17	.961
Self-rated health	Good	1			1		
	Moderate	4.52	1.89~10.81	< .001	1.06	0.92~1.23	.427
	Bad	4.59	1.36~15.42	.014	1.15	0.91~1.45	.258
Self-rated happiness	Happy	1			1		
	Moderate	1.32	0.53~3.31	.548	1.16	0.99~1.35	.068
	Unhappy	0.82	0.18~3.73	.797	1.23	0.98~1.55	.081
Stress	Stressful	1			1		
	Moderate	3.39	1.11~10.41	.037	0.88	0.75~1.03	.111
	Not stressful	5.69	1.69~19.09	.005	0.96	0.78~1.19	.728
Sadness or despair	No	1			1		
	Yes	2.33	0.86~6.35	.097	2.17	1.85~2.53	< .001
Suicidal ideation	No	1			1		
	Yes	3.60	0.89~14.49	.071	1.90	1.60~2.25	< .001
Sleep	(hours/day)	0.65	0.41~1.03	.068	0.98	0.92~1.03	.375
Drug addiction	No	1			1		
	Yes	8.06	2.35~27.70	< .001	8.10	6.09~10.76	< .001
Smoking	No	1			1		
	Yes	3.67	0.97~13.85	.055	1.40	1.18~1.67	< .001
Problematic drinking		1.29	0.93~1.77	.126	1.18	1.10~1.27	< .001

AOR=adjusted 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교급, 거주형태, 습관적 약물사용이 유의한 관련요인으로 나타났다.

먼저 학교급부터 살펴보면, 다문화 청소년과 비다문화 청소년 두 군 모두에서 중학생일수록 폭력피해 경험이 높았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3]에서 학교폭력피해 경험이 2012년 중학교 13.4%, 고등학교 5.7%였고, 2017년에는 중학교 0.5%, 고등학교 0.3%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에서 높은 결과를 지지한다. 마찬가지로 다문화 청소년에서도 12~14세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폭력피해 경험이 4.3%로 15~17세 1.6%와 비교하여 높았던 선행연구

구결과와 유사하다[4]. 중학생은 11~14세 신체적, 심리 정서적으로 급변하는 사춘기에 해당하는 시기이므로 고등학생에 비해 정서적 동요가 크고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크다. 중학생의 신체, 정서적 변화와 정체성의 혼란에 따른 스트레스의 표출은 폭력가해의 가능성과 주변의 폭력피해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15]. 특히, 중학교 시기의 다문화 청소년은 사춘기 변화 뿐 아니라 국내 문화의 적응, 또래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자아정체성의 혼란을 함께 경험하며 이중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16]. 최근 중도입국과 외국인 자녀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17] 국내 문화에 대한 적응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춘기를 보내야 하는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이들이 폭력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더 높음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다문화 청소년과 비다문화 청소년 모두에서 거주형태가 유의하였는데, 하숙이나 자취,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경우와 같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지 않은 경우일수록 폭력피해 경험이 높았다. Park 등[18]의 연구에서도 친척과 생활하거나 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가족과 지내는 청소년에 비해 폭력피해의 위험이 16~25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을 둘러싼 가족 환경이 폭력피해의 보호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가족 지지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폭력피해에 좀 더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반면, 지역사회를 통한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교사의 지지가 학교 적응 유연성에 영향을 주었던 선행연구는[19,20] 가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다문화 청소년에게 필요한 접근 전략을 제시한다. 따라서 폭력피해 예방에 있어 가족과 함께 생활하지 않는 비다문화 청소년 뿐만 아니라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지 중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로, 다문화 청소년과 비다문화 청소년 모두에서 습관적 약물사용이 폭력피해 경험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습관적 약물사용은 대표적인 청소년기 일탈행동 중 하나로 다문화와 비다문화 청소년 모두 일탈행동을 경험할수록 폭력집단에 대한 노출과 함께 폭력피해 경험의 위험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Maniglio [21]도 청소년기 폭력피해와 약물 사용 간에는 양방향의 관련성이 있음을 지적하며 폭력피해의 고위험군에 대한 접근에 있어 습관적 약물사용을 비롯한 청소년기 일탈행동 경험이 있는 집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특히, Kim [22]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의 다문화 청소년의 약물남용 경험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부모 특성과 외모 및 언어 특성이 다문화 청소년의 약물남용에 미치는 영향과 나아가 폭력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 외에 다문화 청소년에서는 비다문화 청소년과는 달리 주관적 건강상태와 스트레스 인지가 폭력피해 경험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폭력피해 경험이 높았는데 이는 폭력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폭력피해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서 스스로 덜 건강하고 덜 행복하다고 여겼던 Park 등[18]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폭력피해 경험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추후에는 다문화 청소년의 폭력피

해 경험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폭력피해 경험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폭력피해가 증가된 스트레스 수준과 관련이 있었던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23-25]. 몇몇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폭력피해 경험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고[24,25], 또 다른 연구에서는 폭력의 가해자 그룹이나 피해자 그룹에서는 스트레스와 폭력피해 경험 사이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으나, 가해-피해 중첩 집단, 즉 폭력의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그룹에서는 스트레스와 폭력피해 경험 사이에 유의한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23]. 본 연구결과에서는 스트레스와 폭력피해 경험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여러 측면에서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로 생각된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폭력의 피해 경험 유무로만 살펴보았을 뿐, 폭력의 가해-피해 중첩 그룹에 대해서는 고려해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조사된 스트레스는 “평상시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로 물었으며, 폭력피해 경험은 최근 12개월 동안의 폭력 경험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지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폭력피해의 시점과 조사 시점과의 시간적 거리가 멀다면, 폭력피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스트레스 보다는 문화적 차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학업 수행의 어려움과 적응에 대하여 다문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전반적인 스트레스에 대해서 응답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폭력피해와 다문화 청소년의 스트레스 간의 관련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비다문화 청소년에서는 다문화 청소년과는 달리 성별, 경제상태, 슬픔 및 절망감 경험, 자살생각, 흡연 및 문제음주 경험이 폭력피해 경험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폭력피해 경험이 높았던 선행연구[26,2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여 비다문화 청소년의 폭력피해에 있어 성별 변수를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 가정 경제수준이 ‘상’ 경우에 비해 ‘중’인 경우에서 폭력피해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빈곤이 폭력피해의 중요한 위험요인이었던 Kang [28]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Chung과 Chun [27]의 연구에서는 개인, 가족, 또래 및 학교요인을 고려한 다변량 분석에서 빈곤여부가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아 빈곤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비다문화 청소년의 폭력피해 위험에 있어 가정의 경제상태 변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슬픔 및 절망감을 경험한 군에서 폭력피해 경험이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선행

연구에서 우울감과 폭력피해의 유의한 관련성을 보고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10,11]. 그러나 본 연구는 단면연구이므로 슬픔 및 절망감 혹은 자살 생각이 폭력피해 경험에 선행하는지, 아니면 폭력피해 경험이 슬픔 및 절망감 혹은 자살 생각을 가져오게 되는지의 전후 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에 관한 인과관계는 전향적 연구를 통해 파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슬픔이나 절망감, 자살생각의 경우 자존감 저하 및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함께 경험할 수 있으므로, 폭력피해에 중복으로 노출된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29]. 따라서 비다문화 청소년들이 슬픔이나 절망감, 자살생각을 경험하는 경우 이들이 폭력피해의 고위험군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특성 상 비다문화 청소년의 흡연, 음주, 습관적 약물 사용과 같은 문제행동이 폭력피해의 경험에 의한 것인지[10], 혹은 폭력피해의 경험이 흡연, 음주, 습관적 약물사용으로 이어지는지를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다문화 청소년과는 달리 흡연과 문제음주 경험은 비다문화 청소년에서 폭력피해의 경험과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으므로 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단면 연구의 특성 상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행태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 자료인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므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비다문화 청소년과 다문화 청소년 모두에서 중학생일수록, 가족과 함께 생활하지 않을수록, 습관적 약물 사용을 경험할수록 폭력피해 경험이 높아 두 집단 간 폭력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된 요인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스트레스 인지가, 비다문화 청소년에서는 성별, 경제상태, 슬픔 및 절망감 경험, 자살생각, 흡연 및 문제음주 경험이 폭력피해 경험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청소년기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중재와 관리를 위해서는 청소년의 다문화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과 고려가 필요하겠다. 향후에는 다문화와 비다문화 청소년의 폭력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 전향적 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언한다.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다문화 청소년들과 비다문화 청소년들의 폭력피해 경험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7년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를 이용

하였다. 연구결과, 다문화 청소년들의 폭력피해 경험은 비다문화 청소년들에 비해 높았으며 다문화 청소년과 비다문화 청소년 모두에서 중학생,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습관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 폭력피해 경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비다문화 청소년과 달리 다문화 청소년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스트레스를 낮게 인식할수록 폭력피해 경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다문화 청소년에서는 여학생과 중간 수준의 가정경제 상태인 군에서 폭력피해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슬픔 및 절망감, 자살생각을 경험한 군, 흡연 및 문제 음주를 경험한 군에서 폭력피해 경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중재와 개입에 있어 다문화와 비다문화 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요인에 대한 고려와 차별화된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차자료의 특성 상 기존에 제시된 척도를 사용하였으므로 다문화와 비다문화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요인을 탐색하지 못한 제한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청소년 가정의 문화적 특성과 청소년의 발달특성, 그리고 사회 환경적인 변인을 모두 고려한 다문화와 비다문화 청소년의 폭력피해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REFERENCES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2015 child abuse and neglect Korea. Status Report. Sejong, Kore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September. Report No.:11-1352000-000025-10.
2. Statistics Korea. 2017 youth statistics [Internet]. Daejeon, Korea; 2017 [cited 2018 July 16].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60039.
3. Korean Educational Statistics Service. 2017 Survey of school violence [Internet]. Chungbuk, Korea; 2017 [cited 2018 July 16]. Available from: <https://kess.vedi.re.kr/post/6662608>.
4. Chung HS, Kim YS, Yi TM, Ma KH, Choi YJ, Park GP, et al. An analysis on the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2015. Seoul, Korea: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6 January. Report No.:11-1383000-000384-12.
5. Korea Labor Institute. Statistics of resident foreigners and immigrant [Internet]. Sejong, Korea: Author; 2016 [cited 2018 Oct 31]. Available from: http://www.seoulmigrant.net/_data/board_list_file/20/2016/20160531144117.4420.0.0.pdf.

6. Casimir GJ, Morrison BJ. Rethinking work with "multicultural population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1993;29(6): 547-559.
7. Kirmayer LJ. Rethinking cultural competence. *Transcultural Psychiatry*. 2012;49(2):149-164.
<https://doi.org/10.1177/1363461512444673>
8. Beiser M, Hou F, Hyman I, Tousignant M. Poverty, family process, and the mental health of immigrant children in Canada.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2002;92(2):220-227.
9. Kang HJ. A study on the case and confrontation plan of the school violence to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Multiculturalism and Human*. 2016;5(2):121-144.
10. Kim YM. Victimization, psychological adaptation, and delinquency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6;16(1):470-481.
<https://doi.org/10.5392/JKCA.2016.16.01.470>
11. Kim HJ. A study on the effect of adolescent violence victimization on discriminatory behavior and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Journal of Youth Welfare*. 2017;19(3):187-209.
<https://doi.org/10.19034/KAYW.2017.19.3.08>
12. Lee GY, Lee DY. Influencing factors on violent victimization experiences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y. *Journal of Education and Culture*. 2017; 23(6(B)):453-469. <https://doi.org/10.24159/joec.2017.23.6.453>
13.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The 13th (2017)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statistics [Internet]. Seoul: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cited 2017 July 15]. Available from: <http://www.cdc.go.kr/CDC/contents/CdcKrContentView.jsp?cid=77762&menuIds=HOME001-MNU1130-MNU2393-MNU2396-MNU2407>.
14. Lee SB, Cho WJ. The study of physical activity habit for academic achievement, stress detection, subjective happiness and school violence experience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Journal of Holistic Education*. 2017;21(1):79-94.
15. Shin HS. The effect of individual, family, and peer and school variables on the middle school students' peer violence typ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05;12(4):123-149.
16. Lee RH, Kim JS.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in the association between violence victimization and alcohol use among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018;35 (1):25-39. <https://doi.org/10.14367/kjhep.2018.35.1.25>
17. Yang KM, Kang KK, Kim JY. Longitudinal study and multicultural youth support policy for multicultural youth V. Sejong, Korea: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7 December. Report No.: 17-R12-2.
18. Park SB, Lee YE, Jang HS, Jo MK. Violence victimization in Korean adolescents: risk factors and psychological problem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2017;14(5):541-552.
<https://doi.org/10.3390/ijerph14050541>
19. Jung SJ, Kim JS.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and program satisfaction in the community children center on social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2;19(8):77-102.
20. Baik JS, Kim J, Jung HK. The Influence of demographic factors, self-esteem, communication skill, and social support on school resilience of adolescents -comparison between multicultural and nonmulticultural adolescents in Jeonnam province.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2014;12(1):127-141.
21. Maniglio R. Association between peer victimization in adolescence and cannabis use: a systematic review.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2015;25:252-258.
<https://doi.org/10.1016/j.avb.2015.09.002>
22. Kim HS. Differential risk of juvenile delinquency among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2016;50(1):41-74.
23. Kim SA. The effect of stress and attachment on offending and victimization experience among adolescents: a focus on dual experience group and general experience group. *Studies on Korean Youth*. 2005;16(2):5-36.
24. Kim JM, Kong BG, Kang JW, Moon JJ, Jeon DW, Kang EC, et al. Comparative study of adolescents' mental health between multicultural family and monocultural family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015;26(4):279-287.
<https://doi.org/10.5765/jkacap.2015.26.4.279>
25. Kim KS, Song EJ, Kim MK, Ju SJ, Kim MJ. Virtual reality program model for trauma intervention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2017;21(2):361-366.
<https://doi.org/10.6109/jkiice.2017.21.2.361>
26. Kim SA. The effect of school and personal factors on middle-school offending and victimization experience: a HGLM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007;24:9-33.
27. Chung HE, Chun JS. Risk factors of adolescents' victimization by school violence.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2012;14(1): 195-212.
28. Kang HA. Poverty, risky environments of disadvantageous neighborhoods, and adolescents; depression and anxiety. *Korean Journal of Social Studies*. 2010;41(3):327-348.
29. Kim SJ, Shon HS, Kim YH. Association suicide ideation and suicide attempt with parent configuration, violent victimization, and residence area in adolescents: based on the data from 2013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6;18(5):2787-2800.